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제주지역 경선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전 대표가 지난 1일 제주지역 경선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아래쪽으로 오영훈 의원.

민주당 경선 막바지... 제주 정치인 '희비'

이재명 지사 제주서 1위 이어 부울경·인천서도 선두 경기·서울·3차 슈퍼윙크 남아... 결선 투표 여부 주목 송재호 "제주도민께 감사"·오영훈 "결선 투표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주 경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얻은 데 이어 부산·울산·경남과 인천에서도 대세를 확신했다. 민주당 지역 경선이 종반을 향해 가면서 지지 후보에 따라 제주지역 정치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제주시 난타 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경선에서 득표율 56.75%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전 대표는 35.71%를 획득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6.55%로 3위, 박웅진 의원이 0.99%로 4위를 차지했다.

제주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 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는 득표율 55.34%로 1위에 올랐고, 3일 인천 경선에서는 53.88%,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58.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충청·영남·호남·제주 지역 경선과 1·2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합산한 누적 득표율을 54.90%(54만5537표)로, 34.33%(34만1076표)를 얻은 이 전 대표를 20.57%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의 지역 경선은 경기(9일)와 서울(10일)만을 남겨 두고 있다. 10일에는 3차 선거인단 결과가 발표되고, 누적 과반 득표자는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

이 지사는 남은 경선에서 약 20만여표 이상만 얻으면 본선행 티켓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여명 가운데 투표율 약 70%를 가정했을 때 본선행에 필요한 매직 넘버는 75만여표로 추산된다.

이 지사 측에 불리한 대장동 의혹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경선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이 지사 측과 2위 주자인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 캠프 제주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제주 경선 뒤 "오늘 경선에서 넘치는 사랑을 주신 제주도민께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린다"며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반면, 이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제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선에서는 개발 비리 의혹이 아닌 미래의 길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결선 투표에서 결정해줄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오는 8일 2차 경선 4명 압축 국민회의힘 대선 경선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오는 8일 발표되는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4강 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힘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컷오프를 실시, 예비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한다. 2차 컷오프는 당일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3위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된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는 원 전 지사와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치열한 접전을 예상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장기표 전 경남감배 을 당협위원장의 지지선언을 끌어내며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총선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강경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하 의원도 4강 진출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여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항마는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캠프 내에 '화천대유 의혹구명 TF팀'을 구성, 부동산 기득권 부패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국회=부미현기자

국민회의힘 4강 컷오프... 원희룡의 운명은? 마사회장 해임 김우남, 제주 정치 복귀하나

지난 1일 해임 최종 확정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취임 8개월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날 김우남 회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취임한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감찰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를 받았다.

농림부는 감사 진행 결과 정부에 해임을 건의, 7월 말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9월 김 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은 최종 확정, 1일 한국마사회에 통보가 이뤄졌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경마 고객, 전국의 말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임직원들은 회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혼연 일체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제주에서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부미현기자

어쩌면 양적인 성장으로 우리는 잠시 쉬어가야 할 때가 필요했는지 모르다. 그동안 중국관광객의 싸늘이 저가여행을 통해서 제주관광은 관광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잠깐 눈을 돌려 보자. 지금 이 순간 잠깐 관광의 인큐베이션 피리어드(Incubating Period)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기간에 제주관광 성장의 빛과 그림자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제주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중관광이 양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대안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 친환경적 형태의 관광을 지향하면서 질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즉, 제주의 특색을 살린 개발로 관광의 수혜를 각각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국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공정관광을 얘기하고자 한다. 대안관광으로 제시되는 공정관광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공정성은 관광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지역민의 하위문화 종속, 지역주민의 삶의 영역 침범, 불공정한 여행문화, 불공정거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등에 문제 제기 등 이른바 일방적 소비자들의 이용관점에서 시작된 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제주관광, 빛과 그림자 살펴 양적 성장 아닌 질적 성장

공정관광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공정성은 관광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지역민의 하위문화 종속, 지역주민의 삶의 영역 침범, 불공정한 여행문화, 불공정거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등에 문제 제기 등 이른바 일방적 소비자들의 이용관점에서 시작된 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공정관광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공정성은 관광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지역민의 하위문화 종속, 지역주민의 삶의 영역 침범, 불공정한 여행문화, 불공정거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등에 문제 제기 등 이른바 일방적 소비자들의 이용관점에서 시작된 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문명관에서

공정관광으로 체질변화가 필요할 때



문경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 심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안전에 기반한 숙식과 여행지의 방역이 이제는 가장 필수적인 선택 아이템이 됐고, 방역과 위생을 위해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색다른 여행의 체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관광은 양적인 증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6년 1585만의 정점을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위상을 보여주었다. 사드 국면 사태로 다시 침체되는 듯하면서 기세를 올리려는 찰나에 지금의 코로나가 제주뿐만이 아닌 전 세계 관광시장을 멈추게 만든 위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많다. 양적인 증가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진정으로 보존하고 지켜 내야 할 소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제주관광, 빛과 그림자 살펴 양적 성장 아닌 질적 성장

어쩌면 양적인 성장으로 우리는 잠시 쉬어가야 할 때가 필요했는지 모르다. 그동안 중국관광객의 싸늘이 저가여행을 통해서 제주관광은 관광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잠깐 눈을 돌려 보자. 지금 이 순간 잠깐 관광의 인큐베이션 피리어드(Incubating Period)라는 생각이 든다. 이 기간에 제주관광 성장의 빛과 그림자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제주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중관광이 양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대안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 친환경적 형태의 관광을 지향하면서 질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즉, 제주의 특색을 살린 개발로 관광의 수혜를 각각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국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공정관광을 얘기하고자 한다. 대안관광으로 제시되는 공정관광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공정성은 관광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지역민의 하위문화 종속, 지역주민의 삶의 영역 침범, 불공정한 여행문화, 불공정거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등에 문제 제기 등 이른바 일방적 소비자들의 이용관점에서 시작된 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아 갈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공정관광을 얘기하고자 한다. 대안관광으로 제시되는 공정관광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공정성은 관광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지역민의 하위문화 종속, 지역주민의 삶의 영역 침범, 불공정한 여행문화, 불공정거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등에 문제 제기 등 이른바 일방적 소비자들의 이용관점에서 시작된 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공정관광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사회적 불공정성은 관광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지역민의 하위문화 종속, 지역주민의 삶의 영역 침범, 불공정한 여행문화, 불공정거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등에 문제 제기 등 이른바 일방적 소비자들의 이용관점에서 시작된 중한 가치들도 같이 사라지는 우려를 범했는지도 모른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힘든 모든분께

정기적금 특별이벤트

2021.10.01.~2021.10.29.

3년 최고

4.0%

2년 3.0% 1년 2.5%

가입대상 : 개인 및 사업자(법인포함)
 우대조건 : 1. 제주양돈농협 통장 자동이체 신청시
 2.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 변경 시
 3. 가맹점 결제계좌 변경 시
 4. 쿠팡최초 가입 시
 5. 오픈뱅킹 최초 가입 시

1-5 중 택 1

제주양돈농협

본점 064-729-7979 인화지점 064-753-5628 한림지점 064-796-6621-3 삼화지구지점 064-727-0011
 이도지점 064-753-0192-3 북노형지점 064-711-8899 신보리지점 064-711-7561-3 외도우정로지점 064-749-9650

三姓祠 秋期大祭

굴항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高·梁·夫三姓祠財團에서는 탐라(탁라)를 창시하신 三乙那의 위업을 기리고 추원하는 2021년도 삼성사 추기대제를 다음과 같이 봉향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21. 10. 10.(일) 10:00
 ○ 장 소 : 삼성사 삼성전 (제주시 소재 삼성혈)

현 관
 초 헌관 고재규(高在圭) (강릉시)
 아 헌관 양건홍(梁健弘) (제주시)
 종 헌관 부창순(夫昌淳) (서귀포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민 및 제족,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음복을 생략하여 봉향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향일 10.10.(일) 삼성혈 관람시간은 13:00부터입니다.

2021. 10. .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 재단**
 이사장 부 봉 하